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취업비자·추첨률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이민  
송주연 변호사

문: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등록된 온라인 사전등록 수가 발표되었고 들판에 몇 건이 등록되었고 추첨률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답: 올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 수는 75만8994개로 작년에 접수된 47만4421개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한해 사용이 가능한 취업비자의 수는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5002개, 그리고 미국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2만 개인 총 8만5000개이다. 올해 등록된 사전등록 수가 발표되면서 취업비자 접수 방식 개선의 불가피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올해 등록 건수가 현저히 급증한 이유는 복수로 등록한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크다. 추첨률을 높이기 위해 하기도 않는 복수접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낙 경쟁이 치열한 취업비자 신청 과정이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괴를 낳게 되었다.

이번 이민국에서 발표된 접수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의 총 접수된 등록 수는 26만9424개이며, 이 중 한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24만1299 개, 복수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2만 8125개다. 반면, 지난 3월에 등록된 2024 회계연도 접수를 보면, 총 접수된 등록 수가 75만8 994개이며, 이 중 한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35만103건, 복수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40만8891개로 접수되었다. 즉, 한 개의 등록만 접수한 건은 2021회계연도에 비해 10만개 남짓하게 증가했다면, 복수 접수된 건은 38만 766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신청자에게 복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 다른 취업기회를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채용 기회가 있는 경우이다. 만일, 단순히 추첨의 기회를 높이려는 이유로 한 신청자를 위해 복수등록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두 개의 계열사가 채용기회는 하나이나, 추첨

획률을 높이기 위해 두 회사가 모두 한 직원을 위해 사전등록을 했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인 경우 할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등록 건의 증가로 인해 총 등록된 사전등록건의 증가에 관해 이민국 또 수된 등록 수가 75만8 994개이며, 한 신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허용되거나 않은 복수등록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미 사기방지를 위한 조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민국은 만일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이 확인된다면, 청원서는 거절되거나, 승인이 철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방 법집행기관에 조사와 추가 처분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이민국은 등록된 총 75만 8994건 중 11만791개를 무작위로 추첨했으며, 이는 작년에 추첨이 된 12만7600개에 비하면 1만6908개 적게 추첨한 것이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예년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로 예측해 보면, 추첨이 되었으나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yopinion@koreadaily.com](mailto:m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 증가…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완성된 청원서 접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록건의 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추가분 추첨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라 알렸다.

즉, 작년에는 추첨이 되었더라도 최종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건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8만 5000개의 비자만 승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분으로 추첨한 등록의 수가 올해보다 높았다. 15%가 채 되지 않는 추첨률을 기록한 올해, 취업비자 시스템의 개선은 이민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민국은 등록과 추첨 시스템을 개선하여 내년 추첨률은 올해보다 높을 거라 언급했으나, 다양해지는 전문분야의 확장으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전문 인력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많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수의 할당량을 증가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http://www.songnlaw.com)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취업비자추첨률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이민  
송주연 변호사

문: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등록된 온라인 사전등록 수가 발표되었고 들판에 놓았는데, 몇 건이 등록되었고 추첨률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답: 올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 수는 75만8994개로 작년에 접수된 47만4421개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한 해 사용이 가능한 취업비자의 수는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5000개, 그리고 미국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2만 개인 총 8만5000개이다. 올해 등록된 사전등록 수가 발표되면서 취업비자 접수 방식 개선의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이유는 복수로 등록한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크다. 추첨률을 높이기 위해 하기도 않는 복수접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낙 경쟁이 치열한 취업비자 신청 과정이므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괴를 낳게 되었다.

이번 이민국에서 발표된 접수가 따르면, 2021회계연도의 총 접수된 등록 수는 26만9424개이며, 이 중 현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24만1299 개, 복수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2만 8125개다. 반면, 지난 3월에 등록된 2024 회계연도 접게를 보면, 총 접수된 등록 수가 75만8 994개이며, 이 중 한 개의 등록만 한 경우가 35 만103건, 복수접수자로 접수된 건은 40만8891개로 접게되었다. 즉, 한 개의 등록만 접수한 건은 2021 회계연도에 비해 10만개 남짓하게 증가했다면, 복수 접수된 건은 38만 766개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신청자에게 복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기업에서 다른 취업기회를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채용 기회가 있는 경우이다. 만일, 단순히 추첨의 기회를 높이려는 이유로 한 신청자를 위해 복수등록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두 개의 계열사가 채용기회는 하나이나, 추첨

획률을 높이기 위해 두 회사가 모두 한 직원을 위해 사전등록을 했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인 경우 할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 등록건의 증가로 인해 총 등록된 사전등록건의 증가에 관해 이민국 또

한 심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허용되지 않은 복수등록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미 사기방지를 위한 조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민국은 만일 허용되지 않는 복수등록이 확인된다면, 청원서는 거절되거나, 승인이 철회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방 법집행기관에 조사와 추가 처분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

다고 알렸다.

올해 이민국은 등록된 총 75만 8994건 중 11만791개를 무작위로 추첨했으며, 이는 작년에 추첨이 된 12만7600개에 비하면 1만6908개 적게 추첨한 것이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예년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로 예측해 보면, 추첨이 되었으나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各自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myopinion@koreadaily.com](mailto:myopinion@koreadail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